

## 韓國 所得分配의 國際比較

玄 鎭 權\* · 姜 錫 勳\*\*

### 논 문 초 록 :

본 연구는 Atkinson, *et al.*(1995) 연구와 꼭 같은 자료와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를 분석하여,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와 KHPS의 두가지 자료를 모두 사용하여 비교한 결과, 사용한 자료에 따라 분석결과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KHPS의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의 불균형도는 미국과 비슷한 형태를 보여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계청의 가계소비실태자료를 사용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의 불균형도는 OECD 국가의 평균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두가지 결과 중에서 어느 쪽이 신뢰성이 있는지는 어떤 표본자료가 현실을 잘 반영하는가에 달려있다. 각 자료는 표본자료로서 한계점을 가지는 만큼, 두가지 결과를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KHPS를 사용한 경우에 나타나는 불균형 정도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통계청자료를 사용한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심각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겠다.

핵심주제어 : 소득분배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 D3

### I. 서 론

소득분배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에서 중요한 분야이나, 우리 나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소득분배에 대한 연구로 대표적인 영역이 소득분배의 정도를 파악하는 실증연구이다. 이러한 실증연구는 국제간에 각국의 소득분포 정도를 비교하는 분야로 발전하여, 특히 OECD 국가들간의 소득분배를 비교하는 연구가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득불균형은 경제발전과 함께 야기되는 문제점이나, 이론적인 접근이 아니고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는 적절한 수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각국의 소득불균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으로 국제간 비교를 시도한다. 소득분배의 국제간 비교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가장 큰 이유는 각국에서 생산된 자료가 통일된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Sawyer(1976)는 국제간 비교를 시도한 연구이나, 국별로 통일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만큼 신뢰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Luxembourg Income Study(LIS)에서 각국의 소득에 관한 미시자료를 통일하여 개발함에 따라 소득분배의 국제간 비교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sup>1)</sup> LIS 자료는 처음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자료를 확보하였으나, 점차로 아시아와 동구권 나라들까지도 포함하는 범세계적인 자료체계를 확보하여 소득분야의 국제간 비교연구를 위한 국제적 공공재로서 제공되고 있다. LIS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분배의 국제간 비교를 한 가장 최근의 연구로 Atkinson, *et al.*(1995)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OECD 국가들의 소득분배의 불균형도를 서로 비교한 연구로 가장 종합적이고, 신뢰할 만한 연구로 인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 관련연구는 매우 부진한 실정이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득분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구별 소득에 대한 미시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나,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이러한 미시자료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 주학중(1979)과 권순원 외(1992) 등을 들 수 있다. 주학중의 연구는 도시가계와 농촌가계자료의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며, 권순원 외의 연구는 독자적으로 실시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는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도시가계연보자료에서 발표하는 집계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sup>2)</sup>

소득분배 관련 연구에 적절한 자료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자료뿐 아니라, 가구소비실태자료 및 대우자료가 최근에 생산됨에 따라 이 분야의 연구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가계자료가 도시가계로 한정된만큼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농촌가계자료와 합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1) LIS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참조.

2)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에 대한 종합적인 문헌고찰은 이정우(1997), Leipziger *et al.*(1992)에서 잘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sup>3)</sup> 그러나 가구소비실태자료와 한국가구경제활동조사자료(KHPS)는 도시가계자료에 비해 모집단을 대표하는 범위가 훨씬 높아 소득분배연구에 더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sup>4)</sup>

우리 나라도 이제 OECD 국가의 회원국이 됨에 따라 OECD 국가들과의 연계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OECD 국가들은 각국의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상호비교 할 수 있는 통계 및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 국가들과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OECD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에 대한 기준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소득분배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인 Atkinson, *et al.*(1995)에는 우리 나라가 포함되지 않았다. 소득분배가 한 국가의 경제구조를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연구분야만큼, 국제간의 비교라는 관점에서 연구가 꼭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나라를 기준으로 국제간 비교를 통해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와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경제활동조사자료의 두 가지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국제간 연구를 위해 자료를 구축하는 LIS에서 한국 자료로 이 두가지 자료를 추가하려고 노력 중이기 때문이다. 즉, 두가지 자료가 LIS 자료와 가장 유사한 자료임이 이미 검증된 상태이며, 행정적으로 이들 자료를 국제적으로 공개하는 행정적 절차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sup>5)</sup>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들의 소득분배를 국제간 비교한 Atkinson, *et al.*(1995)와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여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를 분석하여 OECD 국가들의 소득분배와 비교하는 데 있다. 그들 연구와 같은 종류의 자료로서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와 한국가구경제활동조사자료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1991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와 1992년 한국가구경제활동조사자료를 모두 사용하여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다.<sup>6)</sup> 이들의 연구방법을 똑같이 따름으로써

3) 도시가계자료와 농촌가계자료를 합산하여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 나성린·현진권(1993)을 들 수 있다. 도시가계자료와 농촌가계자료는 생산한 기관이 서로 다르고, 생산목적도 상이하여 합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4) 한국가구경제활동조사는 흔히 대우패널이라는 자료로서 본 자료에 대해서는 대우경제연구소(1994), 한국가구경제활동연구 참조.

5) 우리 나라의 자료를 국제적으로 공개하는 데는 많은 행정적 절차와 조정이 필요하여, 아직까지 교섭중인 상태에 있다. 통계청의 자료는 국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상태며, 대우자료는 현재 교섭 중인 상태이다.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수준을 OECD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교는 우리 나라의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 가지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제Ⅲ절에서는 가구별 특성을 표준화하기 위해 사용한 동등화 지수와 형평성 지수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Ⅳ절에서는 분석결과를 보여 주고, 제Ⅴ절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짓는다.

## Ⅱ. 사용한 자료

Atkinson *et al.*(1995)는 각국의 소득 및 소비에 관한 미시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자료를 사용하여 OECD 국가들의 소득분포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가 이들 연구결과와의 비교에 있는만큼, 가구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미시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통계청 자료와 대우자료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도시가계자료는 1963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자료로 도시가구의 소득 및 소비에 대한 자료가 풍부하다. 그러나 조사한 가구가 도시가구에 한정되고, 농촌가구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가구원수가 1인인 도시의 독신가구에 대해서는 조사상의 어려움 때문에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가계자료에서 보여 주는 자료는 199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모집단 가구의 68% 정도만을 대표할 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1991년부터 농촌가구와 가구원수가 1인인 가구를 포함하여 소득 및 소비에 대한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시작하였다. 도시가계자료의 표본은 4,000여 가구이나, 가구소비실태자료는 약 3만여 가구이므로,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도와 표본수에서 가구소비실태자료가 도시가계자료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구소비실태자료는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신, 조사비용이 높으므로,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 적절한 또 다른 자료로는 한국가구경제활동조사자료(Korean

6) 강석훈(1996)은 한국가구경제활동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한국가구경제활동조사자료를 분석한 경우의 한계점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Household Panel Study, 이하 KHPS)를 들 수 있다. KHPS는 1992년부터 전국을 모집단으로 표본추출하여 매년 같은 가구를 조사하는 패널자료(panel data)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패널자료인만큼, 표본수는 약 4,500여 가구로서 가구소비실태 자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두 가지 자료, 즉 통계청의 1991년도 가구소비실태자료와 1992년 KHPS를 모두 사용하였다. 이는 소득불균형을 측정하는 기초자료로서 두 가지 자료를 사용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자료가 가지는 문제점을 서로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연도의 소득불균형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에 적절한 자료는 횡단면 자료(cross sectional data)이며, 표본수가 많은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자료가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불균형의 측정은 특정 연도만 분석하고 그치는 작업이 아니고, 향후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같은 자료 및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여 계속적으로 실증결과를 얻을 때, 소득불균형 정도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시계열자료가 확보되는 것이다.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자료는 5년을 주기로 시행되지만, 소득불균형수준은 매년 민감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5년을 주기로 분석하게 되면 향후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 추세를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또한 통계청 자료는 KHPS와는 달리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생산되는 자료이므로, 연구를 위한 일종의 공공재를 생산하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반면 KHPS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사를 그치게 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실증분석인 만큼 자료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시자료의 정보가 정확한지에 대한 검증방법으로 국민계정상의 집계자료와 비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표 1>은 미시자료의 소득에 대한 정보를 합산하여 국민계정상의 자료와 비교한 결과이다. Atkinson *et al.*(1995)에서는 미시자료를 통해 합산한 값이 국민계정의 집계자료와 비교할 때 90% 이상인 경우에는 우수한 자료로 판단하고, 70-89%인 경우에는 인정으로, 70% 이하인 경우에는 의문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소득의 합계를 기준으로 할 때 캐나다, 핀란드의 경우는 데이터의 정확도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에 의하면 1991년과 1992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495만 원, 547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KHPS에서 나타난 1인당 소득은 451만 5,000원으로 국민계정 자료의 82.5%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경우,

〈표 1〉 소득자료의 정확도 비교: 미시자료와 국민계정의 비교

(단위 : %)

구 분	호주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한국: KHPS	한국: 통계청
	82	86	81	87	87	83	89	87	79	87	92	92
임금 및 봉급	92.2	100.6	101.6	100.0	101.5	108.8	106.9	93.7	97.4	99.4	-	-
자영업소득	124.9	83.7	78.2	90.4	73.4	36.3	53.1	75.7	64.2	78.5	-	-
재산소득	50.7	66.7	60.5	47.7	82.5		78.4	50.6	45.1	55.2	-	-
직업연금소득			85.4					74.5	81.5	81.6	-	-
정부이전소득	75.4	66.4	77.5	75.5	90.6	50.6	74.3	90.9	82.8	86.9	-	-
합 계	83.0	81.7	92.4	90.1	93.5	76.9	80.6	89.0	89.0	89.2	82.5	87.3

자료 : Atkinson *et al.*(1995), 한국의 경우는 KHPS와 통계청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임.

1인당 소득이 432만 2,000원으로 나타나 국민계정의 87.3%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 자료의 신뢰성은 국민계정자료와 비교할 때 인정할 만한 수준의 자료라고 볼 수 있다.

Atkinson *et al.*(1995)에서는 분석대상이 가구를 기준으로 조세와 사회부조액을 공제한 가처분소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조세는 소득세 만을 고려하고, 간접세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소득세에 대한 정보는 조사자료에서 포함할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고, 조사항목에서 누락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구별 인구 및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적으로 소득세액을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들 연구의 방법론과 일치하는 가처분소득의 개념을 사용하여야 하나, 두 가지 자료 모두가 소득세에 대한 정보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 조사자료와 KHPS 모두 소득세에 대한 독립적인 항목이 없다. 소득세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가구별 인구 및 경제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어서 신뢰할 만한 추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소득세부담 수준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소득세가 전체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sup>7)</sup> 본 연구에서는 Atkinson *et*

7) 나성린·현진권(1993)에 의하면 1991년 소득세 전과 후의 소득분포를 지니계수로 측정한 결과 0.3138, 0.2974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실제 가구별 납부한 소득세가 아닌 가구별 인구 및 경제적 특성에 따라 소득세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이

al.(1995)에서 사용한 가처분소득을 사용하여 분석하여야 하나, 자료의 미비점으로 인해 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 III. 분석방법

#### 1. 동등화지수의 사용

소득개념이 정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가구소득이 가구구성원의 후생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가구는 가구원 수, 가구원 연령 등의 인구 특성에 따라 다양하며, 이들 특성에 따라 동일한 소득을 가지는 가구라 할지라도, 구성원들이 누리는 후생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월 100만 원의 소득을 가지는 두 가구가 있는데, 가구원수가 각각 1명, 5명 일 경우에 전자의 가구가 누리는 경제적 후생이 훨씬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구별 인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크기만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현실을 오도할 위험이 있다.

<표 2>는 통계청이 측정한 1995년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이다. 가구원수를 감안하지 않은 경우 5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표 2> 소득분위별 취업인수, 가구원수, 가구소득 (단위: 명, 천 원)

구 분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취업인수	1.54	1.18	1.36	1.55	1.71	1.90
가구원수(A)	3.71	3.30	3.59	3.75	3.88	4.02
가구 월평균소득(B)	1,911.1	812.1	1,285.7	1,676.5	2,193.2	3,586.7
가구원당 월평균소득	515.1	246.1	358.1	447.1	565.3	892.2
가구 월평균소득의 1분위 대비 비율	-	1.00	1.58	2.06	2.70	4.42
가구원당 월평균소득의 1분위 대비 비율	-	1.00	1.46	1.82	2.30	3.63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95.

므로, 이보다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 나라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효과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월평균소득의 4.42배를 나타냈다. 그러나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가구원당 평균소득을 비교해 보면 동 비율이 3.63배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이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소득을 조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소득분배상태가 달리 측정될 수 있다.

상이한 가구의 인구 및 경제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각 가구가 동일한 후생을 누리는 동일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한 지수를 동등화소비단위(equivalent scale)라 한다. 동등화소비단위를 추정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Jorgenson and Slesnick(1984)를 들 수 있으며,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여 우리 나라 자료에 응용한 연구로 유종구·주학중(1986)을 들 수 있다. 동등화지수의 적용에 따라 소득분포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동등화 지수와 소득분포의 형태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 Buhmann, *et al.*(1985)와 Banks and Johnson(1994)을 들 수 있으며, 우리 나라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로는 강석훈(1996), 현진권(1996)을 들 수 있다.

동등화소비단위를 구하기 위해 가장 간단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가구원수만을 고려한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는 정교한 방법이 아니지만, 가구의 특성 중에서 가구원수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가구원수만을 고려한 동등화소비단위의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가구소득을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1인당 가구소득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가구 내에서의 규모의 경제(즉, 주택이나 내구재를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측면)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성인 가구구성원과 자녀들의 연령차이를 감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Atkinson *et al.*(1995)에서는 가구원수만을 고려하되, 가구원수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간단한 동등화지수를 사용하였다. 즉, 가구의 경제적 후생을  $W$ , 가처분소득을  $D$ , 가구원수를  $S$ , 비교척도탄력성을  $E$ 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자.

$$W = \frac{D}{S^E}$$

$E$ 가 0인 경우는 가구원수에 따른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이며,  $E$ 가 1인 경우는 모든 가구원에 대해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Atkinson *et al.*(1995)에서는  $E$ 의 값으로 0.5를 사용하였다. 이 경우 가구원수에



〈표 3〉 가구원수에 따른 동등화지수

가구원수	동등화지수
1	1.00
2	0.71
3	0.58
4	0.50
5	0.45

따른 동등화지수는 <표 3>과 같다.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소득을 그대로 사용하고, 2인인 경우에는 0.71을 곱하고, 3인인 경우는 0.58을 곱하여 서로 상이한 가구원수를 가진 가구를 표준화시켰다.

본 연구의 목적이 Atkinson *et al.*(1995)과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여 소득분배를 국제 간 비교하는 것이므로, 동등화지수도 이들 연구에서 사용한 동등화지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 2. 소득불균형 측정지수

소득분배의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분위수 사이의 비교, 로렌즈곡선, 지니계수(Gini index), Atkinson지수 등을 들 수 있다. 로렌즈곡선은 한 사회의 구성원을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아지는 순서에 따라 차례로 배열한다고 할 때, 전체소득에서 하위 몇 %에 속하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점들을 모아 놓은 곡선을 의미한다. 로렌즈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함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대각선과 로렌즈곡선 사이의 면적을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의 면적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수치가 작을수록 소득분배의 평등함을 의미한다. Atkinson지수는 사회복지함수를 정의하고, 여기서 소득불균형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로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데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함을 의미한다.<sup>8)</sup>

Atkinson *et al.*(1995)에서는 소득계층별 분포, 지니계수, Atkinson지수를 사용하여 각국의 소득불균형 정도를 측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같은 지수를 사

8)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성린·현진권(1993) 참고.

용한다. 이들 모형을 구체적으로 수식을 통해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즉,  $N$ 을 표본수,  $y$ 를 소득의 표본평균이라고 하고, 각각의 소득을  $y_i$ 라고 할 때, 지니계수( $G$ )와 Atkinson지수( $I$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e$ 는 사회가 불균형도를 싫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모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Atkinson *et al.*에서처럼 0.5와 1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1) 지니계수

$$G = \frac{\sum_{i=1}^n \sum_{j=1}^n |y_i - y_j|}{2N^2 \bar{y}}$$

(2) Atkinson 지수

$$1 - I = \left[ \frac{\sum_{i=1}^n \left( \frac{y_i}{\bar{y}} \right)^{1-e}}{N} \right]^{1/(1-e)}$$

## IV. 분석결과

### 1. 소득계층별 분포

<표 4>는 소득계층을 10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의 계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누적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S_{10}$ 의 경우 하위 10%의 소득계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S_{30}$ 은 하위 30% 이하의 계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호주의 경우 소득수준별로 볼 때 하위 10% 및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소득의 각각 2.9%, 7.7%를 차지함을 의미한다. 하위계층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로는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를 들 수 있고, 가장 낮은 나라로는 미국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사용한 자료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 준다. 먼저 KHPS를 사용한 결과, 미국의 형태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 주어 저소득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준다. 반면 통계청 자료를 사용한 결과는 OECD 국가들의 평균수준과 비슷한 형태를 보여 주어, 그다지 심각한 수준이 아님을 보여 준다.

〈표 4〉 소득분위별 누적점유비율

(단위: %)

구 분	연도	S <sub>10</sub>	S <sub>20</sub>	S <sub>30</sub>	S <sub>40</sub>	S <sub>50</sub>	S <sub>60</sub>	S <sub>70</sub>	S <sub>80</sub>	S <sub>90</sub>	S <sub>95</sub>
오스트리아	85	2.9	7.7	13.7	21.0	29.4	39.0	50.2	63.0	78.3	87.3
벨 기 에	88	4.2	10.2	17.1	25.0	33.8	43.5	54.3	66.4	80.3	88.4
캐 나 다	87	2.8	7.8	14.1	21.5	30.1	39.8	50.7	63.3	78.4	87.5
프 랑 스	84	3.0	8.3	14.6	21.8	29.9	39.1	49.5	61.6	76.3	85.5
독 일	84	4.0	9.8	16.6	24.2	32.9	42.5	53.2	65.3	79.4	87.8
아 일 랜 드	87	2.5	7.1	12.6	19.3	27.1	36.3	47.0	59.6	75.1	84.7
이 태 리	86	3.1	8.0	13.9	20.7	28.7	38.0	48.7	61.2	76.2	85.4
룩셈부르크	85	4.3	10.2	17.1	24.8	33.5	43.1	53.9	66.0	80.4	88.8
노르웨이	86	3.9	9.8	16.9	24.9	33.9	43.7	54.6	66.7	80.6	88.7
스웨덴	87	3.3	9.5	16.9	25.3	34.6	44.8	55.9	68.2	81.9	89.7
스위스	82	2.8	8.0	14.1	21.0	29.0	37.8	47.7	58.9	72.5	81.3
영국	86	2.5	7.5	13.5	20.5	28.7	38.2	49.1	61.8	77.1	86.4
미국	86	1.9	5.7	11.2	18.0	26.2	35.7	46.9	60.2	76.3	86.2
OECD 평균	-	3.2	8.4	14.8	22.2	30.6	40.1	50.9	63.2	77.9	86.7
한국: KHPS	92	1.5	5.3	10.6	17.8	25.8	35.1	45.7	58.5	73.8	86.7
한국: 통계청	91	3.2	8.4	14.9	22.3	30.8	40.5	51.1	63.3	77.8	86.8

주: OECD 평균은 13개 분석대상국가들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을 제외하고는 Atkinson *et al.*(1995).

<표 5>는 중간값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심으로 각 소득계층에 있는 가구의 소득규모와의 비교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P10의 경우 하위 10%에 있는 가구의 소득크기가 중간값을 가지는 가구의 소득수준의 몇 %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수치가 클수록 소득격차가 적음을 의미한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하위 10%에 있는 가구의 소득은 전체 분포에서 중간값을 가지는 가구의 소득수준의 46.5%를 보여 준다. 미국의 경우, 하위 10%의 가구소득이 중간값에 있는 가구소득에 비해 3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준다.

우리 나라의 경우, 두 가지 자료가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 준다. KHPS를 사용한 결과에 의하면, 하위 10%의 소득이 중간값의 32.1%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준다. 그러므로 하위계층의 소득규모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반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50.2%로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보여 준다. 하위 75%에 있는 가구의 소득크기는 중간값에 비해, KHPS의 경우는 OECD 국가의 평균값보다 1.07배이고, 통계청 자료의 경우는 같은 수준을 보여 준다. 하위 95%의 경우는 OECD 국가의 평균값에 비해, KHPS의 경우 1.18배, 통계청 자료의 경우 1.03배를 보여 준다.

〈표 5〉 분위수의 중간값에 대한 비율

(단위 : %)

구 분	연도	P <sub>10</sub>	P <sub>25</sub>	P <sub>75</sub>	P <sub>90</sub>	P <sub>95</sub>	P <sub>90</sub> /P <sub>10</sub>
호 주	85	46.5	66.4	142.1	186.5	218.5	4.01
벨 기 에	88	58.5	74.5	128.8	163.2	190.8	2.79
캐 나 다	87	45.8	68.5	137.5	184.1	218.0	4.02
프 랑 스	84	55.4	72.1	139.7	192.8	233.5	3.48
독 일	84	56.9	75.0	132.7	170.8	201.7	3.00
아 일 랜 드	87	49.5	66.7	150.9	209.2	252.2	4.23
이 탈 리 아	86	48.9	68.8	145.0	197.9	233.8	4.05
룩셈부르크	85	58.5	75.1	132.7	184.0	228.1	3.15
노 르 웨 이	86	55.3	76.0	128.7	162.2	187.3	2.93
스 웨 덴	87	55.6	75.6	125.1	151.5	170.4	2.72
스 위 스	82	53.9	73.6	134.3	185.1	244.6	3.43
영 국	86	51.1	67.6	144.6	194.1	232.1	3.79
미 국	86	34.7	61.7	149.6	206.1	247.3	5.94
핀 란 드	87	58.9	76.5	125.5	152.7	173.6	2.59
네 덜 란 드	87	61.5	75.7	135.0	175.0	206.4	2.85
뉴 질 란 드	87	53.6	-	-	186.6	-	3.48
OECD중간값	-	54.6	73.6	135.0	184.6	223.3	3.46
OECD평균(A)	-	52.8	71.6	136.8	181.4	215.9	3.53
한국: KHPS(B1)	92	32.1	65.1	146.6	208.2	254.8	6.49
한국: 통계청(B2)	91	50.2	72.4	136.8	185.5	222.8	4.44
(B1/A)×100	-	60.8	90.9	107.2	114.8	118.0	183.9
(B2/A)×100	-	95.1	101.1	100.0	102.3	103.2	125.8

주: OECD 평균은 13개 분석대상국가들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을 제외하고는 Atkinson *et al.*(1995).

두 가지 자료를 사용하여 각 소득계층의 소득규모를 중간값과 비교해 보면, KHPS는 OECD 국가에 비해 저소득층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형태를 보여 준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의 경우는 OECD 국가의 평균치와 유사하나, 저소득층은 조금 낮고, 고소득층은 조금 높은 형태를 보여 준다. 그러므로 KHPS를 통해 소득분배문제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소득불균형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반면, 통계청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 나라가 OECD 국가의 평균수준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소득불균형 상태임을 보여 주고 있다.

## 2. 중간층의 분포

<표 6>은 중간값의 일정 비율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호주의 경우 전체 가구의 12.3%가 중간값 소득수준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18.4%의 가구가 중간값에 있는 가구 소득수준의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9.2%를 보여 준다. 우리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KHPS의 경우는 18.2%로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 주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중간값 이하에 있는 가구의 전체 분포를 살펴보면, KHPS의 경우는 우리 나라가 소득분배가 가장 악화되어 있는 미국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반면, 통계청의 자료는 OECD 국가들의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 준다.

소득분포를 설명할 때, 고소득층, 중간계층,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층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주관적인 기준

<표 6> 중간값의 일정 비율 이하의 누적분포

(단위: %)

구 분	연도	50	60	70	80	100	120	150	200
호 주	85	12.3	20.3	27.5	34.5	50.0	63.4	78.5	92.6
벨 기 에	88	4.7	11.1	19.8	29.9	50.0	68.8	85.9	96.3
캐 나 다	87	12.2	18.2	26.2	34.3	50.0	65.3	80.5	92.7
프 랑 스	84	7.5	13.2	22.8	32.1	50.0	65.0	79.0	91.1
독 일	84	6.5	12.6	21.5	30.2	50.0	66.2	83.4	94.6
아 일 랜 드	87	10.7	19.9	27.5	36.0	50.0	61.4	74.8	88.7
이 탈 리 아	86	10.5	17.4	27.2	35.2	50.0	62.7	76.7	90.4
룩셈부르크	85	5.4	11.2	21.0	29.6	50.0	67.1	82.6	94.9
노 르 웨 이	86	7.33	12.8	20.1	29.0	50.0	68.2	85.2	95.5
스 웨 덴	87	7.6	12.6	20.0	28.6	50.0	70.9	89.5	98.0
스 위 스	82	8.0	13.8	21.7	31.3	50.0	66.4	81.6	91.7
영 국	86	9.1	17.6	27.1	35.2	50.0	62.7	77.2	91.2
미 국	86	18.4	24.1	30.3	36.5	50.0	61.7	75.1	89.0
OECD평균	-	9.2	15.8	24.1	32.5	50.0	65.4	80.8	92.8
한국: KHPS	92	18.2	23.2	28.4	34.0	50.0	62.6	76.8	89.1
한국: 통계청	91	10.5	16.0	23.2	31.9	50.0	65.6	81.5	92.8

주: OECD 평균은 13개 분석대상국가들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을 제외하고는 Atkinson *et al.*(1995).

이 다르므로 비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EC에서는 중간값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50% 이하에 있는 계층을 저소득층, 50%~150%의 계층을 중간층, 150% 이상인 계층을 상류층으로 분류한다. <표 6>에서 보여주는 결과를 통하여 EC의 기준에 따라 세 가지 소득계층으로 구분하여 각 계층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할 수 있다.

<표 5>는 세 가지 계층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국가별로 보여 준다. 중간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는 벨기에, 스웨덴으로 80% 이상의 수준을 보여준다. 반면 미국은 56.7%로 중간층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KHPS를 사용한 결과 미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준다. 반면 통계청 자료를 사용한 결과는 중간층이 71%, 저소득층 10.5%, 고소득층 18.5%로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준다.

<표 7> 소득계층별 가구비율

(단위: %)

구 분	연도	저소득층	중간층	상류층
호 주	85	12.3	66.2	21.5
벨 기 에	88	4.7	81.2	14.1
캐 나 다	87	12.2	68.3	19.5
프 랑 스	84	7.5	71.5	21.0
독 일	84	6.5	76.9	16.6
아 일 랜 드	87	10.7	64.1	25.2
이 탈 리 아	86	10.5	66.2	23.3
룩셈부르크	85	5.4	77.2	17.4
노 르 웨 이	86	7.33	77.9	14.8
스 웨 덴	87	7.6	81.9	10.5
스 위 스	82	8.0	73.6	18.4
영 국	86	9.1	68.1	22.8
미 국	86	18.4	56.7	24.9
OECD평균	-	9.2	71.6	19.2
한국: KHPS	92	18.2	58.6	23.2
한국: 통계청	91	10.5	71.0	18.5

주: OECD 평균은 13개 분석대상국가들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을 제외하고는 Atkinson *et al.*(1995).

### 3. 형평성 지수를 통한 평가

앞에서 보여 준 소득계층별 소득분포를 지니계수와 Atkinson지수의 형평성 지수를 사용하여 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핀란드가 소득분포의 불균형도가 가장 낮은 나라로 나타났고,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불균형도가 가장 심한 나라는 미국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에서 보여 준 소득분포의 형태처럼 사용한 자료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 준다. 먼저 KHPS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니계수가 0.358로서 미국보다도 소득불균형도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대상이 되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소득불균형도가 심한 나라로 나타났다. 반면 통계청 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 주어, 비교대상이 되는 OECD 국가

<표 8> 불균형도 지수를 통한 국제비교

국 가	연도	지니계수	Atkinson ( $e=0.5$ )	Atkinson ( $e=1.0$ )
핀 란 드	87	.207	.036	.075
스 웨 덴	84	.220	.046	.103
노 르 웨 이	86	.234	.046	.095
벨 기 에	88	.235	.049	.103
룩셈부르크	85	.238	.046	.092
독 일	84	.250	.052	.101
네덜란드	87	.268	-	-
캐 나 다	87	.289	.070	.146
호 주	85	.295	.075	.158
프 랑 스	84	.296	.077	.160
영 국	86	.304	.082	.181
이탈리아	86	.310	.080	.153
스 위 스	82	.323	.099	.184
아일랜드	87	.330	.093	.188
미 국	86	.341	.099	.212
한국: KHPS	92	.358	.114	.233
한국: 통계청	91	.287	.067	.138

주: OECD 평균은 13개 분석대상국가들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을 제외하고는 Atkinson *et al.*(1995).

들 중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여 준다. Atkinson지수를 사용한 결과는 몇 나라에서 조금의 차이를 보이지만, 지니계수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 준다.

## V. 결론 및 한계점

Atkinson *et al.*(1995)는 동일한 형태의 자료와 방법론을 적용하여 OECD 국가들의 소득분배를 서로 비교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양한 국가의 횡단면자료를 통일된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OECD 국가들의 소득분포에 대하여 많은 시사성을 던지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연구대상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그들의 연구와 똑같은 형태의 자료와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를 분석하였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로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와 대우경제연구소의 KHPS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자료를 모두 사용하여 비교한 결과, 사용한 자료에 따라 분석결과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KHPS의 경우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의 불균형도는 미국과 비슷한 형태를 보여 주었으며,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자료를 사용한 결과,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의 불균형도는 OECD 국가의 평균 정도의 수준을 보여 주었다.<sup>9)</sup>

두 가지 결과 중에서 어느 쪽이 신뢰성이 있느냐는 어떤 표본자료가 현실을 잘 반영하는가에 달려 있다.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 가지 조사의 표본추출방법, 설문서 구성방법 및 내역, 조사진행방법, 데이터분석방법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다만 일단 밝혀진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두 자료의 상대적 신뢰성에 대하여 논의해 본다. 먼저, 표본 수에 있어서는 가구소비실태자료가 KHPS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표본수가 증가할수록 조사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명제를 받아들이는 경우 가구소비실태자료의 결과가 신뢰성이 높을 수 있다.

다음으로 KHPS의 1992년 자료는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자가소비액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들 가구의 소득이 과소추정되

9) 또한 본고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나라마다 상이한 시기를 대상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소득분배가 급속하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구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에 속하는 가구들일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저소득층의 가구소득이 과소추정되어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나라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우리 나라의 소득불균형문제가 본고에서 KHPS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제도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불균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세제도 또한 소득불균형도를 완화하는 기능이 약하며, 지난 30여 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이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가 OECD 국가의 평균수준과 비슷하다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직관적으로 수용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대체로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가 본고에서 KHPS를 사용한 경우에 나타나는 불균형 정도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통계청 자료를 사용한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심각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우리 나라의 분배불균형 정도는 소득보다는 부의 편중에서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을 중심으로 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를 통한 소득에 대한 조사자료는 우리 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신뢰할 만한 조사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분배의 불균형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부를 통한 소득자료에 대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국제적으로 축적되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소득분배 연구의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미진했던 과거와 비교할 때, LIS자료와 같은 통일된 자료로서 소득분배의 국제간 연구를 시도한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1991년과 1992년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지만, 우리 나라 소득분배에 대한 시계열적인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같은 자료를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하겠다. KHPS의 경우는 패널자료로서 의미를 가지며, 이후의 자료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무응답가수로 인해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생산되고 있어서 향후 계속적으로 생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만큼 자료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10) 부에 대한 연구로 종합토지세 대상 토지의 편중실태와 다주택 소유가구에 대한 분석을 들 수 있으며, 현진권(1996) 참조.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자료는 표본이 풍부하고 5년을 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여 계속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소득분배에 관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가구소비실태조사가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강석훈, “한국의 소득분배 -OECD 국가와의 정태적 비교-”, 『월간경제』, 대우경제연구소, 1996. 10.
2. 권순원 · 고일동 · 김관영 · 김성웅, 『분배불균형의 실태와 주요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2.
3. 나성린 · 현진권, 『조세 및 사회부조정책의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1993.
4. 대우경제연구소, 『한국가구 경제활동연구』, 1994.
5. 주학중, 『한국의 소득분배와 결정요인(상)』, 한국개발연구원, 1979.
6. 유종구 · 주학중,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동등화 소비단위”,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86 겨울.
7. 이정우,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1997.
8. 현진권, “동등화 소비단위를 사용한 조세의 형평성 측정”, 『공공경제』 창간호, 한국공공경제학회, 1996.
9. 현진권 편,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논문집 96-1, 1996.
10. Atkinson, A., L. Rainwater, and T. Smeeding,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Evidence form the Luxembourg Income Study”, OECD, 1995.
11. Banks, J. and P. Johnson, “Equivalence Scale and Public Policy”, *Fiscal Studies*, Vol.5, No.1, 1994.
12. Buhmann, B., L. Rainwater, G. Schmaus, and T. M. Smeeding, “Equivalence Scales, Well-being across Ten Countries Using the Luxemburg Income Study(LIS) Database”,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34, No.2, 1985.
13. Jorgenson, D. W. and D. T. Slesnick, “Aggregate Consumer Behavior and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Review of Economic Studies* 51, 1984.

14. Leipziger, D., *et al.*,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in Korea*, World Bank, 1992.
15. Sawyer, M.,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Outlook*, Paris: OECD, 1976.

## 부 록

### LIS 자료의 현황과 활용

소득과 관련한 국제간 비교연구를 위해 각국의 원시자료를 모두 표준화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이를 쉽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표준화된 각국의 원시자료(미시자료)는 국제간 연구를 위한 국제적 공공재(international public goods)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3년도부터 시작된 룩셈부르크 소득연구 프로젝트(Luxembourg Income Study Project)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LIS는 소득관련 국제비교연구라는 분명한 목적하에 20여 개국의 미시자료를 표준화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LIS는 1983년 룩셈부르크 정부와 룩셈부르크의 Walferdange 소재 인구, 빈곤 및 공공정책 연구센터(the Center for Population, Poverty and Policy Studies)의 공동후원하에 시작되었다. LIS는 명시적으로 각국 가계조사자료에 수집된 사회·경제자료를 수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국 국민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비교연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LIS 데이터베이스는 1996년 현재 총 25개국 70여 개의 자료들을 구축하고 있는데, LIS 회원국은 선진경제지역인 유럽(15개국)과 북미(미국, 캐나다) 외에 이 행기 경제의 특징을 보이는 동구(헝가리, 체코, 폴란드) 그리고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아시아(대만, 이스라엘), 호주를 포함하고 있다. 수록된 데이터세트의 연도는 1968-1994년으로서, 1978년 이전 10개, 1980년 전후(1979-1983년: 1기) 14개, 1985년 전후(1984-1988년: 2기) 21개, 1990년 전후(1989-1994년: 3기) 22개이다.

LIS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국가와 연도는 <부표 1>과 같으며 대표적 자료에 대한 설명은 <부표 2>와 같다.

〈부표 1〉 LIS 데이터베이스 목록: 국가 및 연도

국 가	Historical Databases		1기	2기	3기
호 주			1982	1986	1990
오스트리아				1987	1991
벨 기 에				1985/88	1992
불 가 리 아					1991/1993*
캐 나 다	1971	1975	1981	1987	1991
체 코					1992
덴 마 크				1987	1992
핀 란 드			1981*	1987	1991
프 랑 스			1979	1984	1989/1990*
독 일	1973	1978	1981/1983	1984	1989/1992*
형 가 리				1987*	1991
아 일 랜드				1987	
이 스 라 엘			1979	1987	1992
이 탈 리 아			1981*	1986	1991
룩셈부르크				1985	1991*
네덜란드			1983	1987	1991
노르웨이			1979	1986	1991
폴 란 드				1986	1992
대 만			1981	1986	1991
러 시 아					1992/1994*
슬로바키아					1992
스 페 인			1980/1981*		1990/1991*
스 웨 덴	1968	1975	1981	1987	1992
스 위 스			1982		1992*
영 국	1969	1974	1979	1986	1991*
미 국	1971	1975	1979	1986	1991

주: \*표시는 1996년 초 이용가능하도록 작업중인 데이터베이스임. 주어진 연도는 반드시 자료가 수집되는 해가 아니라 기준연도임.

〈부표 2〉 1차연도 LIS 데이터베이스

국 가	연 도	원 자 료	표본크기	모집단 포괄범위
미 국	1979	current population survey	15,225	97.5
이스라엘	1979	family expenditure survey	2,300	89.0
영 국	1979	family expenditure survey	6,888	96.5
스 위 스	1982	income and wealth survey	7,036	95.5
캐 나 다	1981	survey of consumer finances	15,136	97.5
호 주	1981-2	income and housing survey	15,985	97.5
독 일	1981	transfer survey	2,727	91.5
노르웨이	1979	norwegian tax files	10,414	98.5
스 웨 덴	1981	swedish income distribution survey	9,625	98.0

주: 1. 표본크기는 실제조사된 가계의 수임. 단,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원자료 6만 5,000개와 3만 7,900개 중 일부를 추출하여 LIS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임.

2. 모집단 포괄범위는 원자료의 표본추출범위(sampling frame)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LIS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별 데이터세트는 각국의 가계조사자료를 가구 특성, 각종 지출항목, 소득원천, 조세부담, 각 사회부조급여 등 동일한 형식에 맞추어 구성한 것으로서 국제비교라는 명시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가구 특성으로는 가구원수, 가구내 소득자수, 주택보유 여부, 부양자녀수와 연령, 노인인구수와 연령 등이 포함되며, 지출항목으로는 총지출, 음식료품, 주택 관련지출, 의복비, 교통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소득자료는 임금과 자영소득뿐 아니라 현물급여, 재산소득, 개인연금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등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소득세, 재산세, 사회보장각출금, 간접세 등 납세액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계단위와 개인단위로 자료를 구분하여 분석의 유연성과 폭을 제고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문제의식에 따라 가계 또는 개인으로 분석단위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소득개념을 사용할 수 있고, 가구 및 인구 특성에 따라 남성-여성, 도시-농촌, 인종별·연령별 구분 등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LIS 데이터베이스는 각국 가계조사자료를 정리한 본 데이터베이스외에도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각국 데이터의 성질, 조사방법, 표본추출문제, 모집단 포괄범위 등 자세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조사방법 데이터(technical

documentation database)를 갖추고 있으며, 각국의 조세·사회부조정책의 내용을 수록한 제도데이터(the LIS institutional database)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미시자료와 거시자료를 결합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의 거시통계량을 수록하고 있는 거시데이터(the LIS aggregate statistics files)를 갖추고 있다. 거시데이터는 국민계정 등 거시통계외에 노동통계, 인구통계, 사회보장지출과 수입에 관한 각국 시계열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LIS는 원시적 미시자료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였으나, 이를 무제한 제공할 경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룩셈부르크의 정부 전산기에 모든 나라의 원시자료를 축적하고, 사용자는 원시자료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간접적인 프로그램만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 자료로서 LIS에서 활용가능한 자료는 통계청이 주관하여 조사한 『도시가계조사』 자료와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 그리고 대우경제연구소가 주관하여 조사한 『한국가구경제활동조사』 자료(‘대우패널’)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LIS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연구자가 LIS 자료를 이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회원가입을 협의하는 중에 있으므로 회원가입이 이루어지면 LIS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연구범위는 상당히 넓다. 가령, 소득분배 및 빈곤율의 국제비교, 지하경제의 국제비교, 자영업자 소득의 국제비교, 조세 및 사회부조의 효과에 관한 국제비교, 성장과 분배에 관한 실증연구, 계층별 노동관련 국제비교 등이 가능할 것이다.